

2019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국제공법) 참석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강영준

1. 들어가며

2019년 7월, 헤이그의 낮은 무척이나 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날로 악화되어 가는 한일관계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때마침 찾아온 이준 열사 기일(7월 14일)을 맞아 헤이그 남서쪽 공원묘지 내 이준 열사 묘역을 방문하여 흰틀립을 헌화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조금씩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1907년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위해 이역만리 네덜란드까지 왔음에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분에 젖어 해가 지지 않는 헤이그 시내를 걸었을 열사를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도 국제법의 수도라 일컬어지는 헤이그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 법조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2. 1주차 : 헤이그 도착, 시작!

계절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헤이그에 도착하니 국제공법 과정 개강 전 날인 일요일 저녁, 역에 내려 숙소로 향하다 보니 모자이크 같은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건물이 눈에 띄니다. 얼마 전까지 송상현 교수님이 소장으로, 지금은 권오곤 당사국총회 의장님과 정창호 재판관님이 계시는 ICC였습니다. ICC를 지나 헤이그 북쪽,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스헤브닝겐 해변 근처에 자리한 숙소로 도착하니 전세계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에서 몇 명이 이곳에 머무는지 물어보니 199명(아카데미 국제공법 최종수료자는 363명)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한국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에 얇은 패딩을 입고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설마 3주 내내 이러진 않겠지 하는 염려 속에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이준 열사 묘역지 참배



첫 날 방문한 스헤브닝겐 해변

드디어 개강일, 참가자들이 무리지어 트램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평화궁으로 향했습니다. 아카데미를 신청할 때, ‘정말 ICJ랑 같이 있는 것 맞아?’라는 의문을 품었던 만큼 평화궁 방문자센터 앞에 서있는 아카데미 안내판과 참가자들의 긴 줄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평화궁 좌측 뒤편에 평화궁과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아카데미 건물에 앉아 평화궁 종탑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헤이그에 왔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00명에 달하는 수강생 사이에서 첫주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일정은 오전에 강연자 3명이 각 50분씩 강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각종 특강 또는 세미나, 대사관 및 국제기구 방문이 진행되는 형식이었습니다. 특히 1주차에는 현재 ICJ 재판관 중에서 가장 오랜 재임기간을 자랑하는 슬로바키아 출신의 톰카(Peter Tomka) 재판관님 특강이 인상 깊었습니다. ICJ 역사를 주제로 한 강의 자체는 평범했으나 참가자들 질문이 시작되자 각종 판례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훨씬 넘겨서야 강의를 종료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란 출신이나 이란혁명 이후 스웨덴에서 강의하고 있는 마흐무디(Said Mahmoudi) 교수님의 자위권, ILC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르난데즈(Escobar Hernandez) 교수님의 국가대표의 면제에 대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또한 3주동안 강연하는 찰스워스(Hilary Charlesworth) 교수님은 예술에서 보이는 국제법의 다양한 주제를 연관지어 보여주어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ICJ 톰카 재판관님과 함께



국제법의 아버지!
휴고 그로티우스와 함께



평화궁 도서관 열람실
내 한국어 국제공법 책

3. 첫 번째 금요일 : 대사관, ICC 방문

그렇게 1주일이 흐르고 금요일, 아카데미 사무국에서 마련한 대사관 방문 프로그램 중에 한국대사관 방문이 예정된 날입니다. 근데 마침 ICC 정창호 재판관님으로부터 같은 날 ICC에서 Asia-Pacific Forum이 열리니 행사 시작 전 잠시 한국인 아카데미 참석자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 포럼은 오전에 있었던 중국어 모의 ICC 재판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아직 중국이 ICC 회원국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CIIL(China Initiative on International Law) 후원 하에 중국어 대회가 별도로 치러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사 직전 정창호 재판관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ICC의 역할에 대한 포럼의 초반부를 듣다 한국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함께 모성준 협력관님으로부터 최근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한 북핵문제 현안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후에는 OPCW 당사국총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돌아오신 이윤영 대사님도 따로 뵈고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함부르크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걱정했으나 네덜란드인의 합리성을 반영하듯 공항 청사 지하에 있는 역사를 빠져나와 같은 쉥겐 국가이다 보니 출국수속도 없어 탑승구에 도착하기까지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국제법 수업을 듣고 있는 저를 위해 지인이 준비한 일정에 따라 1648년 베스트팔렌의 평화를 구성하는 2개의 조약이 체결된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 백진현 재판관님이 소장으로 재직 중인 ITLOS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뮌스터의 경우, 전 날 찰스워스 교수님 수업에서 본 보르흐(Gerard ter Borch)의 그림, “뮌스터 조약의 비준”의 배경이었던 터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ICC 정창호 재판관님과 함께



한국대사관 방문



베스트팔렌의 평화가 시작된 뮌스터



ITLOS 앞에서

4. 2주차 : ICJ 방청-오늘 파키스탄의 모습이 내일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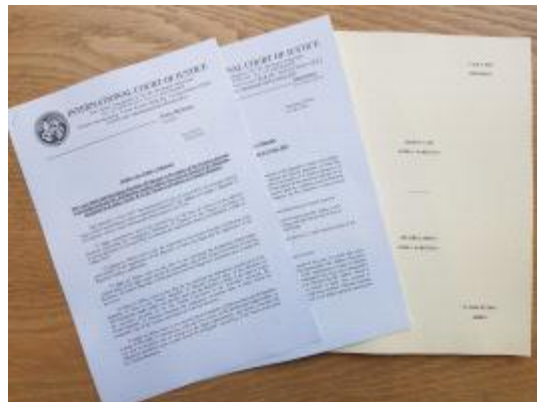
2주차는 지난주에 이어 찰스워스 교수님의 강연과 더불어 문화유산에 대한 데켄(Kerstin Von Der Decken) 교수님, 생물다양성에 대한 두보(Sandrine Maljean-Dubois) 교수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인도-파키스탄 간 자드하브 사건(Jadhav Case)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과연 방청이 가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출신 참가자가 많다 보니 이들에 우선권이 주어져서 대부분 참가자들은 강의실에서 생중계로 선고를 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사관 방문 때 뵈었던 협력관님의 배려로 외교단 배치를 발급 받아 재판관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1층 당사국 좌석 바로 뒤편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파키스탄 대법원장을 역임한 파키스탄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인 질라니(Tassaduq Hussain Jillani) 판사와 마주보는 위치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ICJ 판결문은 수없이 읽어봤었지만 그 판결문을 선고하는 장면은 본 적이 없었기에 과연 처음부터 다 읽는 것인지, 반대의견도 다 읽을지 궁금했습니다. 현 재판소장인 유세프 소장이 앞에 몇 개 단락을 빼놓고 판결 이유를 읽은 뒤 주문을 읽고 다시 사무국 직원이 불어로 주문을 다시 낭독했습니다. 관할권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사안에서 파키스탄 질라니 판사만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ICJ에서 수차례 다뤄진 영사관계 비엔나협약(VCCR) 상 영사접견권 위반에 대한 사건이다 보니 파키스탄에게 쉽지 않은 사건인 것은 분명했지만 막상 15 대 1의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듣고 있으니(그것도 영어와 불어로 2번) 아직 국적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모습과 겹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재판관이 떠난 법정 내부를 구경하고 나오니 재판을 방청한 외교단에게 제공되는, 갓 출력해서 물리적으로 따끈따끈한 판결문을 나눠줍니다. 저희와 달리 2층에서 재판을 본 인도, 파키스탄 참가자들의 표정을 살피며 평화궁 밖을 나서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온 방송국 특파원이 열심히 본국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나라가 주변국과 분쟁으로 ICJ에 서게 되었을 때 파키스탄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국제법 실력을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ICJ 재판관(가장 우측이 질라니 판사)



외교단에게 제공되는 판결문

5. 권오곤 의장님 환영 대사관저 만찬과 백진현 소장님과의 오찬

Jadhav Case 방청을 마치고 한국 참가자들 및 헤이그에서 JPO로 근무하는 분들과 함께 헤이그 인근 바세나르에 위치한 대사관저로 향했습니다. ICC 당사국총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권오곤 의장님이 헤이그에 오신 것을 환영하기 위한 만찬이었는데 대사님께서 헤이그에 와있는 저희들을 특별히 초청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침 권오곤 의장님도 저희 3명이 흥진기법률연구재단 지원으로 이곳에 참석했다는 것을 들으시고는 매우 반가워하셨습니다. 대사님, 의장님, 박선기 MICT 재판관님 3분으로부터 가장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기회가 올 때까지 착실히 준비하라는 조언을 받으면서 언젠가 헤이그에서 활약할 날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침 헤이그에 와계셨던 ITLOS 백진현 소장님과 오찬이 있었습니다. 작년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아카데미(SAIL)에서 백진현 소장님 강의를 듣고 이번에 마침 함부르크 방문계획도 있어 ITLOS 견학이 주말에도 가능한지를 출국 전 재판소에 문의했으나 주말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평화궁 주위를 산책하다 어디선가 많이 보였던 동양인 신사분을 지나쳤습니다. 민망함을 무릅쓰고 다시 되돌아가 인사드리니 바로 작년에 뵈던 백진현 소장님이셨습니다. PCA에 2주간 와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한국 참가자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보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점심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전 주말에 함부르크에 가서 소장님이 안 계신 ITLOS를 다녀왔던 터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최근 ICJ의 국제해양법 관련 일거리를 많이 빼앗아 가고 있는 ITLOS의 역할에 대해 이야깃거리를 피웠습니다.

오찬을 마치고 지난 Jadhav Case 방청 당시 옆자리에 앉으셨던 칠레대사님으로부터 ICC 침략범죄에 대한 특강을 듣다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내셔널갤러리에 들러 찰스워스 교수님 수업에서 본 한스 홀바인(Hans Holbein)의 “대사들”을 보고 현재 IMO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가해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시 합격 후 국제기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신 가해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저 만찬 단체사진



백진현 소장님과의 오찬

6. 3주차 : 대사관 방문 및 평화궁, 도서관 견학

3주차에는 찰스워스 교수님 외에 국가-투자자 분쟁해결(ISDS)을 주제로 한 교토대 하마모토(Shotaro Hamamoto) 교수님 및 아프리카 국제재판소에 관한 니윤게코(Gerard Niyungeko) 재판관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강의 외에도 여러 대사관 방문 및 평화궁, 도서관 견학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이스라엘 및 방글라데시 대사관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헤이그 시내 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철통보안을 자랑했습니다. 방문객을 소그룹으로 나눠 철문너머 계단으로 데려가더니 여권을 걸어 개인정보는 물론 입·출국 스탬프를 갖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 공항보다 더 철저한 몸수색을 거쳐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ICJ, ICC 등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 별도 법률부서가 자리하고 있으며, 테러로 한 번에 자녀를 잃지 않도록 형제자매를 다른 통학버스에 태워보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삼엄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달리 이틀 뒤 방문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온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최근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노력을 이야기하기 위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기고문을 프린트해 나눠주고 대사님이 직접 한국이 방글라데시의 모델이라고 치켜세워 주신 덕분에 저 역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주에 방청을 위해 평화궁 내부에 들어갔었지만 법정만 들어갔다 나온터라 3주간 매일 주위를 맴돌았던 평화궁 견학 또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2014년 우리나라가 기증한 웃는 해치상은 반가웠지만 2층 중앙에 자리한 PCA의 대회의실(소위 Japanese Room)을 장식한 일본이 기증한 벽화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평화궁 도서관 견학은 헤이그의 영웅인 그로티우스에 대한 소개와 전세계 번역본을 비롯한 국제법 관련 책이 수장된 지하서고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단국대 김석현 교수님이 번역하신 『자유해론』 한글판이 보여 신기했습니다. 특히 도서관 견학을 안내해준 Jeroen Verveiet의 경우 평화궁 도서관 베테랑답게 이준 열사에서부터 독도에 이르는 한국 이슈를 잘 알고 있어 놀라웠고, 얼마 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방문해 법학도서관 건립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돌아왔다고 하여 흥미로웠습니다.



방글라데시 대사관 방문



도서관 지하서고에 소장된 자유해론

7. 헤이그에서의 국제법 삼국지

일본의 차기 ICJ 재판관 후보군에 들어있다 평가받는 하마모토 교수님은 3주차 ISDS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강의 중 국가간 중재조항의 예시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를 언급하며 최근 일본 정부의 중재위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을 문제 삼는 코멘트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국가가 외국기업의 피해에 배상해 준 사례로 지난 2012년 중-일 도서분쟁 당시 중국인 시위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본인 기업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폭도(riots)라고 지칭한 일본인 사업가의 인터뷰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일전쟁 당시 청두에는 일본군 진주가 없어서 반일감정이 있을 이유도 없는데(실제로는 폭격, 징집으로 많은 희생자 발생) 일본 기업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지방정부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상해줬다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마치 시위의 배후에 정부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전후 맥락없이 일본측 입장을 대변한 설명을 동북아 이슈에 대해 잘 모르는 참가자 앞에서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중국인 룸메이트가 중국학생들을 대표해서 항의서한을 사무국에 보내겠다면서 제게도 연명을 권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법 교육에서 헤이그 아카데미의 역할을 천명한 일련의 UN총회 결의안을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언급으로 오히려 국가 간 적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언급도 문제였지만 역사에 대한 언급없이(또는 잘못된 사실관계) 중국인 시위대의 과격한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은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터라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카데미 종강 하루 전 날인 목요일 저녁, 항의서한에 이름을 올린 12명의 학생들, 하마모토 교수님, 아카데미 사무국의 사무총장 뚜베닌(Jean-Marc Thouvenin), 사무부총장 레거만(Monique Legerman)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이 열렸습니다. 충분한 전후 맥락없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참석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사무총장은 순수한 학문의 장인 국제법 아카데미에서 이런 항의는 전례없는 일이라면서 “최근 중국인 참가자가 많아져서 좋았는데 이렇다면 더 이상 참가자를 보내지 말라고 중국대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감정섞인 대응으로 별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사실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자 항의서한을 보냈던 것인데 오히려 감정섞인 대결이 벌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마모토 교수님께 최근 한-일 간 여러 이슈에 대해서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 승낙을 받았습니다. 원래 중국인 룸메이트를 포함한 전 날 모임에 같이 참석한 중국 참가자들도 초청했으나 그럴 경우 한-일 이슈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어렵고 자칫 더 감정이 격화될 것 같아 룸메이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날, 수료식을 마치고 하마모토 교수님 및 한-일 참가자 등 총 6명이 문제가 되었던 청구권협정 제3조의 해석,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전망, 강의 주제였던 ISDS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일간 산적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전주에 만났던 이탈리아 출신 ICJ 가야(Giorgio Gaja) 재판관님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가야 재판관님은 Jurisdictional Immunities Case 당시 이탈리아측 임시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심리 중 ICJ 재판관에 선임되어 비록 해당 사건에서는 독일의 주장이 인정되었지만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 국가면제를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었고 선고 3일 후 정식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분입니다. 당시 반대의견의 의의와 2012년 이후 국제법의 발전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관습법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제 질문에 씩씩하게 웃으면서 당시 다른 판사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강제징용, 위안부, 더 나아가 독도 문제가 ICJ나 다른 중재재판에 회부된다면 어떤 논리를 동원하여 승소할 수 있을지, 국내 민사법원에서는 불가능한 사죄(satisfaction)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수 없을지 등을 상상하면서 평화궁을 나섰습니다.

8. 감사의 글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해 학부시절 공부했던 국제법 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처음 온전히 접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법학의 영역에서 국제법은 그나마 제게 익숙한 법이었습니다. 로스쿨 1학년이었던 지난해 운 좋게 국제법 모의재판과 WTO 모의재판에서 수상한 다음 변호사 시험 전까지는 접어두려던 국제법을 때마침 알게 된 재단의 ‘유민펠로우 국제강좌 참가지원사업’을 통해 아카데미 참가를 지원받게 되면서 재단이 아니었음 엄두도 못 내었을 3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ICC, ITLOS와 같은 국제법원 재판관을 배출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중에 송도 GCF에서 일하고 있거나 여수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해양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이들을 보면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여전히 힘의 논리가 강력한 국제무대지만 국제법이 통하는 영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정학적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법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참가를 계기로 국제법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향후 국제법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갈고 닦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재단 이사단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카데미 수료증을 들고



ICJ 판사석 앞에서